



##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

이름: 김재연

학번: 20215050

상담 일자: 9월 28 일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학업단절 기간이 너무 길었고 군대에서의 대화와 대학생으로써의 대화는 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빠른 복학의 특성상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수업을 듣고있어 따라가기가 힘들다. 지인의 힘을 빌려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고민이다.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1. 하얀 잠

하얀잠

선생님, 어젯밤 나는 토끼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는 좋은 토끼 똥이 되었어요. 딱딱한 똥은 버리고 말랑말랑한 똥은 주워 먹는 혼한 토끼가 되었어요. 눈알이 파랗게 바래서 어떤 표정은 읽지 못하는 토끼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버석버석 우는 토끼가 되었어요. 신은 더 똑똑하고 튼튼한 토끼가 필요했을 텐데. 나는 말라 죽은 믿음만 값하먹어서. 소금처럼 하였던 몸은 점점 검어져서. 멀리서보면 동그란 잿더미 같답니다. 귀가 길다고 더 잘 들는건 아니지만. 벽을 보고 앉아서도 모든 각도를 읽어낼수있지만.

달의 마음속이 둥글다면, 반쪽이 무너져 내린 이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늘 나무토막처럼 짧은 잠만 자는데, 끝과 시작이 이어지지 않는 꿈들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에 이를 떨면서. 다른 꿈들보다 무서운 장면을 가지기위해 세상에 퍼진 악취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쪽 귀가접히고. 한쪽 귀는 꼿꼿할 때. 은빛으로 반짝이는 침대위에서. 별들이 꼼짝없이 터져 죽는 것을 봅니다……





해석

2연에서 달은 토끼들이 모여서 사는 곳. 달은 둥글어야하나 화자에게 달은 둥글지 않고 무너져 있는 반달임. 선생님에게 내가 더 나빠질지, 더 나아질지에 대한 의문을 표출함. 스스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워하고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것. 학업 단절, 꼬인 선이수 등 안 좋은 상황에 쳐한 금쪽이처럼 현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함. 꿈은 망상, 상상, 생각 속 가정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 뭉툭한 상상을 뾰족하게 대답하는 것은, 평범한 상황에서도 최악, 극단적인 예측, 혹은 반응을 하는 불안정한 화자의 상태를 의미. 화자는 아무도 모르게 속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의 웃음을 비난으로 생각할만큼 마음 속에 여유가 없음. 신을 의심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짐. 자신의 선천적 요소(아마 남들과 다른 성적 지향)에 의한 결국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자신을 이해해줄 것을 갈구함. 금쪽이는 시의 화자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나, 불합리한 상황에서 고통 받는 화자와, 금쪽이가 겹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함. 비슷한 상황에서 시인이 쓴 시를 읽고 위로받기를 바람.

선정이유

김재연 금쪽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힘듦을 겪고 있다. 하얀 잠이라는 시에 나오는 파란 눈의 토끼와 같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듦. 금쪽이의 고민이 단순히 감정적인 불안이 해소 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보면 위안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시를 추천함. 시에서 화자는 흰색의 토끼가 되었으나, 다른 토끼와 달리 파란 눈의 토끼가 됨. 더 튼튼하고 더 똑똑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토끼는 자신을 낮추는 화자의 심리를 반영함.



## 2. 결과적인 감정

## 결과적인 검정

나는 거의 이방인의 기분을 벗어났다 이곳의 아침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눈물을 참던 해바라기가 냉 동실 속에서 얼어간다 멀쩡한 기분을 갈아엎는 드릴이 있다 온순한 이마들이 땀을 버리며 지나간다 하얀 소문 이 아스팔트 위에서 눈 흘기며 말라간다

우리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뒤축이 무뎌진 너의 신발을 신고 너처럼 걸어보았다 잠깐 네가 된 것 같아서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홀라후프를 목에 걸고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다 엄마 의 기분은 무슨 도형일까 없는 아이의 이름을 고르자 무 릎으로 기어가자 세모처럼 질문하자 아무것도 되지 말자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먹지 말자 하지만 먹고 싶을 때 언 제나 먹을 수 없음을 알자 너의 무정과 나의 무질서를 닮 은 그런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셔터를 잘못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58

이름이 끝까지 불리기 전에 멈춰 선다 꼭짓점을 향해 구르며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없는 별처럼 터져간다 너 는 나보다 먼저 죽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섞일 수 없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끝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때 우리는 매력적인 오답처럼 웃는다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라고 부르자 아니 쫓아가자 어 제는 긴장 속에서 떨자 아니 늙은 날이라고 부르자 내일 은 도망가자 아니 편해지자 세상에 첫번째 물방울이 떨 어지기 직전에 엉킨 가발을 벗어던지자 티브이 속에서 늙지 않는 퇴마사와 눈이 마주치기 직전에 너의 잘못에 대해 생각하자 여러 겹의 손자국이 묻은 얼굴로 나의 잘 못에 대해 생각하자

찰칵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겹치면 나는 소리

모든 햇빛이 나를 발견한다

159

어두운 쇼윈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 인간이 서 있다





## 해석

1연-남들과 뒤쳐진 <mark>것 같은 느낌</mark>이 드는 느낌을 멀쩡하지 않은 모습들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mark>들었다</mark>.

2연-'0'이라는 것은 동그라미와 닮은 형태로 내가 원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가 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3연-내가 바라는 이상향인 '너'가 되기 위해 '너'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

5연,6연-'너'가 되기 위해 '나'가 노력하는 모습이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7연-'나'와'너'가 겹치는 순간

8연-'나'와 '너'가 겹침으로서 햇빛이 나를 발견하듯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듬.

9연-실질적으로 완벽한 '너'가 되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이상향에 닿기 위해 노력이 더필요함을 의미.

선정이유

시 속에서 '너'를 따라하려는 '나'의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이 시를 선정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노력해나가는 금쪽이의 모습과 비슷하여 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를 선정하였다.

